

2007

즐거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우리들의 약속



2007 성평등 자치규약 자료집

yeoyeon.cyworld.com

2007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연세자치단위연대

yeoyeon.cyworld.com

2007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연세자치단위연대

CONTENTS

성평등 자치규약에 대한 모든 것

- 02 • 2007, 성평등 자치규약의 의의
- 04 • 대학 내 공동체를 위한 성평등 자치규약
- 07 • 만화로 바라본 자치규약 이야기
- 08 • 끊임없는 물음, 이성애중심주의를 왜 이야기해야 하는 것인가
- 이성애중심주의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당신을 위해
- 11 • 자치규약을 지지하는 우리들의 한마디

단대 이야기

- 12 • 신과대 이야기 - 다시 태양이 되기 위하여
- 15 • 문과대 이야기 - 그동안 우리가 잊고 지냈던 것
- 16 • 사과대 이야기 -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을 위하여

우리의 공동체 생활을 위한 시끌벅적 이야기

- 18 • 새터 공동체 놀이 문화 다시 보기
- 20 • 새터와 OT 준비에 정신없을 정든내기들을 위한 몇 가지 TIP
- 22 • 정든내기와 새내기가 함께하는 자가진단 테스트
- 25 • 자치규약 학생회 의무사항 홍보
- 26 • 공동체 생활에 대한 여자선배의 이야기
- 28 • '대학 내 공동체를 위한 성평등 자치 규약', 여연자언에서 만들었네?

2007

즐거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우리들의 약속

2007 성평등 자치규약 자료집

illustrated by lazy picnic

2007, 성평등 자치규약의 의의



2월이 되면 학내 곳곳은 새내기를 맞이할 준비로 바쁘다. 단대/반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새터/OT를 통해 새내기들과 정든 내기의 만남을 준비한다. '어떤 이야기들을 함께 할 수 있을까?' '어떤 놀이 문화, 공동체 문화를 통해 함께 할 수 있을까?' 새내기들은 이러한 설렘으로 새터를 기다리고, 정든 내기들은 이러한 고민으로 새터를 준비한다. 그런데 이 때 새내기와 정든 내기가 서로를 처음으로 만나고 자신들의 단대/반 공동체 문화를 함께 공유할 때 전제되어야 할 최소한의 약속이 있다. 학내 구성원 모두가 즐거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 성평등 자치규약이 그것이다.

왜 성평등 자치규약을 통해 反성폭력을 이야기하는가?

성폭력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발생 가능한 사회적 범죄이며 진보적, 비판적 성찰이 가능한 공간으로 대표되는 대학 역시 성폭력으로부터 결코 안전하지 않다. 이에 성폭력과 관련한 문제의식과 성찰은 대학 내 反성폭력 운동으로 이어져왔다. 성폭력은 결코 개인 대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공동체 내부의 성별권력관계, 가부장성에 대한 비판과 고민이 있을 때,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가 가능해진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대학 내 反성폭력 운동은 성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과 해결을 위해 공동체 내부에서의 성폭력과 관련한 끊임없는 성찰과 담론의 형성이 필요함을 이야기해왔다.

이처럼 성폭력에 대한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성찰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성평등 자치규약은 2000년 제정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이어져왔으며, 새터/OT에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해왔다.

새내기들은 새터를 통해 대학 문화를 처음으로 접한다. 물론 새터를 통해 접하는 대학 문화가 그 전부를 말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전부를 대표할 수도 없다. 우리가 일상을 통해 접하는 대학 문화는 언제나 일부일 뿐이며, '주류'일 뿐이다. 그러나 무엇이든 처음 접하는 것은 어렵고, 대개 사람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함으로써 이를 극복하려고 한다. 이는 대학문화, 대학 구성원들을 처음 접하는 새터에서 또한 다르지 않다. 새내기들은 새터를 통해 처음 접한 대학 문화를 적응함으로써 공동체에 대한 적응을 준비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는 더욱 어렵고, 큰 부담감을 갖는다. 때문에 새터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 문화에 대한 성찰과 고민은 더욱더 중요한 것이다.

이제 정든 내기와 새내기 모두가 함께 즐거운 새터를 만들기 위한, 꼭 필요한 준비를 하자. 정든 내기들은 기존의 자신들의 단대/반 공동체 문화가 특정 성/성정체성을 배제해오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새내기들은 이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어떠한 중요성을 갖는지, 새터에서부터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자.

그러므로, 새터를 다시 보자

그동안 학내 구성원들은 새터를 준비하면서 새내기와 정든 내기들이 서로의 어색함을 빨리 없애고, 친해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들을 구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새터의 각종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이를 즐기기에 앞서, 성평등 자치규약을 토대로 '새터에서의 많은 프로그램들이 '공동체'라는 명분하에, 개개인의 목소리를 듣지 못할 정도로 많은 폭력들에 둘러싸여 있지는 않았나.'에 대한 성찰과 고민부터가 필요하다.

'새터에서 이뤄지는 대개의 프로그램들이 특정 성/성정체성을 배제한 채 이뤄지는 않았는지.' '관계 맺기의 중심으로 나이, 학년 권력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를 통해 성폭력을 정당화하고,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를 더욱 어렵게 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성평등 자치규약을 특정한 시기에만 피해야 할 목록 정도로 여겨온 것은 아닌지.'

성평등 자치규약이 그 의미 그대로 학내 구성원들 모두의 약속으로서 지켜지기 위해서는 공동체 내부에서 끊임없이 자치규약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새터에서 성평등 자치규약을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성평등 자치규약이 있다.'라는 사실 전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성평등 자치규약이 왜 있으며, 성폭력에 대한 기초적인 전달이 공동체 전체에 어떠한 의미로, 왜 필요 한가'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져야 한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겨온 대부분은 '권력'에 기대어 작동하고 있다. 성평등 자치규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그동안 성별, 나이, 학년 권력을 기반으로 행해지는 폭력에 대해 '공동체'라는 이름에 묶여 이를 못본 것은 아닌지' 나와, 나의 공동체를 성찰해보자. 새터에서 매년 당연한 듯 계속되는 술자리 문화, 놀이 문화가 개개인의 정체성을 배제한 채 이뤄지는 않았는지, 성평등 자치규약을 보며 새터의 공동체 문화를 다시 보도록 하자. ■

by_ 19대 총학생회

대학 내 공동체를 위한 성평등 자치규약

새터 반성폭력 내규 개정안



1. 목적

대학 사회는 기존의 사회에서 분리될 수 없다. 이에 따라 기존 가부장제 사회에서 작동하는 이데올로기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성별 권력관계, 이성애중심주의, 권위주의 등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는 사람들 간의 관계맺음이 이루어지는 공동체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작동된다. 이는 대학 공동체에서 부당한 차별과 억압을 재생산해내고 이로 인해 소외되는 사람들을 만들어 낸다.

대학 내 공동체의 이런 남성중심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꾸준히 있어왔으나 공동체 구성원들의 성찰은 여전히 매우 미약하다. 이는 새터, 대동제, 농활, 연고제 등 과/반/동아리의 활동과 생활 반경 안에서 수많은 성폭력을 양산해냈다. 대학 내 공동체의 성평등을 저해하는 가장 큰 기제는 이러한 일상적인 성폭력이다. 따라서 본 자치규약은 성평등을 위한 실천방안과 함께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를 중심으로 두었다.

대학 내 공동체를 위한 성평등 자치규약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구성원들의 감수성을 키우고 공동체의 남성중심성을 해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성별/성정체성/성적 지향에 관계없이 평등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 그 의미가 있다.

2. 성폭력의 예방과 사건 해결

2-1. 성폭력의 개념

광의의 성폭력(Gender-based Violence)은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성적인 성격을 띤 언어적, 정신적, 신체적 행위 및 요구, 그리고 성별에 기반한 차별

적 행위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즉 성적인 폭력(Sexual Violence)으로 알려진 성적인 신체접촉 및 언어폭력 뿐 아니라 위협적이거나 적대적인 상황의 조성, 특정 성의 취약한 부분을 노린 폭력까지 포함한다. 이는 사회 전반의 남성중심적인 일상이 여성에 대한 폭력과 맞닿아있다는 함의를 가지고 있다.

성폭력은 사건 발생 시의 상황과 개별 피해자가 사건에 대해 갖게 되는 의미, 그리고 사건 해결의 방향에 따라 다른 명명으로 논의되기도 한다. 공동체 내에서 특정 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지적하는 성차별이나 직장, 공공단체, 학교 등의 단체생활에서 성적 언행이나 성차별 유발 등으로 노동권, 교육권, 학습권 등의 기본적인 권리 침해가 일어나는 상황을 법적으로 다루는 성희롱이 그 예이다. 이러한 명명은 성폭력 사건을 어떤 측면에서 해결하는지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며, 이 때 중요한 것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맥락과 피해 상황, 그리고 그 사건을 바라보는 공동체의 시각이다. 본 자치규약에서는 광의의 성폭력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성폭력을 지적하고 이를 예방하고자 한다.

○ 성폭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공동체 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성폭력을 구체적인 사례로 짚어본다면 아래와 같다.

-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시도하거나 요구하는 언어 및 행위
- 상대방의 몸을 훑어보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응시하여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행동
- 놀이 자리에서 특정 성을 대상화하거나 배제하는 것
 - 예 • 성적으로 불쾌한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나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노래를 부르는 경우
 - 술자리에서 자신의 성관계 경험을 이야기하는 경우
-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가지고 성폭력 가해를 정당화하는 언어 및 행위
 - 예 • 여성의 옷차림이나 늦은 귀가가 성폭력을 유발한다고 말하는 경우
- 특정 성의 공간을 침해하여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동
 - 예 • 다른 성의 화장실이나 탈의실을 엿보거나 침입한 경우

- 성적 불쾌감을 주는 육체적 언어적 표현

- 예 •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는 경우
-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성행위 묘사
- 음담패설이나 왜곡된 성의식에 기반한 성적 농담 및 육설
- 왜곡된 성의식을 가지고 개인의 성적 경험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경우

- 특정 성에게 적대적이거나 불편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

- 예 • 공동의 공간에 성적으로 불쾌감을 일으키는 문구, 사진 그림 등을 부착하는 행위
- 온라인 커뮤니티에 특정 성을 배제하거나 성적으로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게시물을 올리는 행위

- 성별 권력을 이용하여 특정 성에게 신체적 폭력이나 위협을 가하는 행위

- 특정 성에게 술자리의 분위기를 위한 서비스를 강요하는 행위

- 예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까이 앉아 술을 따르게 하거나 술을 마시게 하는 경우

- 성적 고정관념 및 편견에 의한 차별적인 언행

- 예 • 성역할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에 의해 일의 분업이 강요되는 경우

- 성적인 의미를 담은 행위를 요구하거나 표현하여 불쾌감을 주는 행위

- 예 • FM 및 각종 게임의 예로틱 버전을 요구하는 경우
- 남학생들을 왜곡된 여성의 모습으로 여장하게 하고 성적으로 대상화해서 심사하는 경우

○ 2차 가해

2차 가해는 성폭력, 혹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사회적으로 왜곡된 통념을 적용시켜 성폭력 피해자에게 정신적,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주게 되는 행위를 말한다.

- 성폭력 사건 자체를 부정하거나 은폐시키는 경우
- 가해자와의 친분 등을 근거로 가해자를 옹호하는 경우
-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건을 유포하는 경우
- 피해자에게 사건의 책임을 돌리는 경우

2-2. 이성애 중심주의

이성애중심주의란 이성애를 유일한 성정체성으로 간주

하고 모든 사람에게 이성애자의 역할을 요구하는 사고 및 행동양식을 말한다. 이성애중심주의는 동성애혐오라는 극단적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며, 공동체 안에서 성소수자에게 가해지는 폭력의 기반이 된다. 본 자치규약에서는 성적체성을 이유로 가하는 폭력을 성폭력으로 규정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규약을 정한다. 각 학내 공동체는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이성애중심적 사고를 되돌아보고, 성적 다양성을 억압하는 이성애중심주의 및 동성애혐오로 인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동성애 혐오에 기반하여 욕설 및 조롱이 담긴 발언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 이성애를 유일한 성적체성으로 간주하여 이성애중심적 커를 문화를 강요하지 않는다.
- 센터 공연자리 등의 놀이자리에서 성소수자를 회화하지 않는다.

2-3. 학년권력과 나이권력

여전히 공동체 내부에서 학년의 높고 낮음을 이용해 언어적/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학년 및 나이 권력, 성별 권력을 통해 성폭력적인 놀이문화를 강요하는 경우도 많다. 학년 권력 및 나이 권력은 공동체 내부의 수평적인 관계 맺음은 물론이고 성평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학내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은 학년 및 나이와 무관하게 본 자치규약을 숙지하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

- 학년의 높고 낮음을 이용해 규약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 규약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문제 제기된 경우 학년이나 성별 권력을 이용하여 이에 폭력적으로 대항해서는 안 된다.

3. 적용 대상

본 자치규약은 학내의 과/반 학생회, 동아리, 학회, 소모임, 동문회 등 모든 자치 단위 공동체의 구성원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4. 의무

- 학내 모든 공동체에서는 각종 행사 및 모임 자리에서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 발생 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 센터, 현장 활동, 대동제 등 학내 공동체 행사를 주최하는 학생회는 성폭력 사건 해결 주체 교양을 이수해야 하고, 전화와 이메일 등 다양한 사건 접수 통로를 마련하여 이를 공고해야 한다.
- 각 학생회는 센터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 자치규약에 대한 교양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본 자치규약을 논의하는 모임에서 제작한 자료집과 포스터를 배포해야 한다.
- 각 학생회는 현장 활동과 대동제 기간 2주전부터 행사가 종료될 때까지 본 자치규약을 소속 단위의 학생들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5. 사건의 처리

- 학내에서 일어난 모든 성폭력 사건은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성폭력 학칙)에 의거하여 성폭력 상담실에 신고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공식적 처리나 비 공식적 처리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
- 성폭력 상담실에 신고한 경우에도 각 학생회는 사건을 지원하고 사건에 대한 공동체 내부의 논의를 책임 있게 이끌어갈 의무가 있다.
- 피해자가 학칙에 의거한 해결을 원하지 않을 경우 학생회는 성폭력 상담실과 총학생회의 자문을 받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할 수 있다.

6. 개정

개정 안건의 상정과 의결은 확대운영위원회의 회칙에 따른다.

제정 : 2000. 2. 9

1차 개정 : 2003. 1. 28

2차 개정 : 2006. 1. 21

3차 개정 : 2006. 9. 12



만화로 바라본 자치규약 이야기



공동체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가 자신을 변호할 때 늘상 사용하는 근거는 '친밀한 관계'이다. '친해지려고 한 것인데', '우리 사이에 왜 그런 것을 가지고 문제삼느냐'라는 물음들은 언제나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고려 없이 이루어지며, '친밀한 관계'라는 판단을 가해자의 시각에서만 바라보는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는 '성폭력'이라는 단어를 '친밀한 공동체'에 끌어들이며, 공동체의 평화를 저해하기 때문에 묻어두어야 할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성폭력은 분명 폭력이며, 범죄이다. 자치규약에서 성폭력을 이야기하는 것은 일상 문화 속에 뿌리깊게 박혀있는 성폭력에 대해 문제제기함으로써 공동체의 건설적인 변화를 이야기하기 위함이다. 성폭력을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것이 아닌,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닐까. ■

by_ 19대 총학생회

2000년 제정된 새터 反성폭력 내규가 2번의 개정을 거치면서(2007년 현재 3차 개정이 된 상태임) 명칭 또한 성평등 자치규약으로 바뀌고 내용 면에 있어서 이성애 중심주의 및 학벌·나이 권력 조항이 추가되었다. 공동체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폭력을 예방하고 개인의 일상 및 사고에 자연스레 내재되어 있는 가부장성에 대한 성찰의 틀을 제공하는 자치규약은 학생들에 의해 자치적으로 제정되었고, 학내의 성폭력 근절 운동에 있어서 의의를 갖는다.

끊임없는 물음, 이성애중심주의를 왜 이야기해야 하는 것인가

- 이성애중심주의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당신을 위해



이성애중심주의란 이성애를 유일한 성정체성으로 간주하고 모든 사람에게 이성애자의 역할을 요구하는 사고 및 행동양식을 말한다. 이성애중심주의는 동성애혐오라는 극단적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며 공동체 안에서 성소수자에게 가해지는 폭력의 기반이 된다.

- 2007 대학 내 공동체를 위한 성평등 자치규약

자치규약에서 정의하고 있는 이성애 중심주의는 위와 같다. 이성애중심주의의 통념은 이성애 외의 다양한 성 정체성을 부정하고 억압하는 역할을 한다. 이 조항이 추가된 이유는 이성애만이 정상이고 당연하다는 생각으로 인하여, 동성애와 같은 다른 성 정체성에 대한 혐오 발언을 하거나 희화화하는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강의실, 술자리 등 다양한 장소와 상황에서 일어나는 성 정체성을 소재로 한 발언들 중에는 비이성애 정체성에 대한 편견에서 비롯된 것들이 있다. 이러한 발언에서 드러나는 비이성애자들의 모습은 정형화되고 왜곡된 모습으로, 변태적인 행위를 하거나 사회가 요구하는 성별의 역할과 모습에 어긋난 삶을 사는 '비정상'으로서 존재한다. '이런 사람이 성 소수자이다' '성 소수자를 구별하는 법을 알려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은 위와 같은 맥락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 현재의 이성애 중심주의는 문제의식의 필요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일상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데에서 오는 당혹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자치규약에 이성애 중심주의 조항이 포함된 것에 대해 의문을 갖는 것을 주변에서 흔히 목도하게 된다. '이성애가 무엇이 문제인가?', '이성애 중심주의가 왜 성폭력으로 이야기되는 것인가?' 와 같은 물음들이 그러하다. 그러나 이러한 물음들은 왜 이성애 중심주의가 자치규약 조항으로 들어가는지에 대한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

이성애 중심주의에 문제제기 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기준이 됨으로써 다양한 성 정체성을 억압하고 폭력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성애 자체에 문제 제기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동성애, 양성애, 무성애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성적 지향으로서 존중받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가지 첨언을 한다면, 동성애가 이슈로 떠올랐을 때 마치 그것이 유행처럼 번져서 물들까봐 우려되고 그것이 조장될 가능성에 대해 '성토' 하는 의견은 종종 볼 수 있으나 누구도 이성애에 물들까봐 우려된다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이성애자라고 전제를 상정하므로 물든다는 표현이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문제제기하는 것은 '조장'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는 맥락이다. 이성애 중심주의는 이성애를 모든 것의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개인의 성 정체성은 그 사람의 삶 자체가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상에서 아무렇지 않게 벌어지는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적인 발언들 때문에 비이성애자들은 자신의 성 정체성이 이성애적 정체성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억압받는 부당함을 겪게 된다. 특히 새터나 OT와 같은 행사 및 공동체 안에서는 이성애 중심적인 커플 문화와 관련한 이벤트, 발언, 호응, 그리고 무언의 강요 등이 발생한다. 이러한 태도 속에서 개인의 당혹스러움과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자신이 비이성애자임을 드러내는 것이 된다. 이러한 경우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성 정체성이 알려짐으로써 겪게 되는 이성애중심적인 통념에 의한 편견 혹은 위협 때문에 이들은 공포를 느끼게 된다. 그러므로 비이성애자들은 스스로의 성 정체성에 관하여 목소리를 낼 수 없으며 존재가 부정되는 것에서 오는 불편함과 공포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이성애 중심주의가 비이성애자들에게만 가해지는 폭력은 아니다. 그것은 여성과 남성 간의 성별 권력 관계를 공고하게 만든다. 이성애자들에게 있어서, 이성애 중심주의는 여/남의 성별 이분법적 역할에서 오는 남성 우월적인 사고를 이미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정된 성



이성에 중심주의에 문제제기 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기준이 됨으로써 다양한 성 정체성을 억압하고 폭력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할에 얽매게 만든다. 이것은 일상에 만연한 가부장제에 대한 성찰 및 여성 혹은 남성으로 인지하기 이전에 갖는 개인의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정체성을 형성하고 긍정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또한 전통적인 성 역할에 충실하게 하여 그것을 정상성으로 여기게 만드는 요소가 되고 있다.

남성 우월적인 사고,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진 성별의 역할에 불편함을 느꼈을 때 직면하게 되는 갈등, 비이성애적인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를 드러내고 자유로운 소통을 할 수 없는 어려움들은 같은 맥락 안에서 존재하는 것들이다. 가부장제에서 '여자/남자답지 못하다' '내 주변에는 동성애자들이 없다' 라고 아무렇지 않게 나오는 발언들은 이성에 중심주의의 맥락에서 기인하는 일상이 되어버린 억압과 배제이다. 스스로에 대한 끊임없는 검열과 고민을 겪고 주변의 폭력을 별 일 없다는 듯이 경험해야 하는 이들에게 현재의

일상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성폭력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물리적인 폭력 혹은 언어적인 유형 자체를 생각하기 쉽다.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성적인 주체로서의 개인이 물리적이거나 언어적인 방편으로 억압당하고 침해되었기 때문이다. 이성애자로 정체화하지 않은 사람들이 직면하는 문제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 폭력과 같은 가시화 된 행위의 경험 이전에 이들은 본질적인 섹슈얼리티가 부정당하는 것을 경험한다. 그럼에도 문제의식 혹은 성찰의 필요를 느끼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성에 중심주의는 그것이 정상성을 강조하고 공고히 하며 일상에 산재하고 있다.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있어 누군가가 배제되는 사실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자치규약을 통해서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by_19대 총여학생회

자치규약을 지지하는 우리들의 한마디

모두가 즐거운 공동체를 위한

우리의 작지만 큰 한결음. 함께 지켜나가요~♡

법과대 회장, 강영민

더불어 많은 공동체,

성평등 자치규약으로 만들어 봐요!

사회과학대 회장, 이호연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

교육과학대 회장, 김영민

다들 간과하기 쉬운 부분들이라 생각지 말고

다시금 돌아보는 시간 갖고 지켜봅시다.

총학생회장, 최종우

성평등 자치규약,

바로 여러분 하나하나를 위한 것입니다.

함께 고민을 풀어봐요~

상경·경영대 회장, 최하연

남녀/여남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사토를 함께 만들어 가요.

문과대 다들 6번 회장, 이정규

우리의 소중한 약속
자치규약 꼭 지켜나가요!

문과대 석브리안 회장, 노종균

열심히 만드는 거니까 무시하지 말고

제발 한번은 읽어봐요. 새내기 여러분 ^^

이과대 회장, 김창수

모두가 알아두면 좋은 자치규약!
같이 읽어 보아요~

문과대 독서반 학생회장, 김연지

모두가 행복한 학내 공간 만들어가요 ^^

문과대 싸이코 11번 회장, 황수진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모두가 즐거울 수 있도록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자치규약!

문과대학생회장, 전소라

한 사람의 열결음보다
열 사람의 한결음이 중요합니다.

체육대 회장, 강성근

당신에게 이것은 삶의 문제! 꼭 읽어보세요.

동아리연합회회장, 김세현

자유롭게 위한 새내기 여러분의 한결음,

성평등 자치규약으로 시작해봐요 ^^

신과대 부회장, 박동현

다시 태양이 되기 위하여 - 신과대 이야기



“다시 태양이 되기 위하여”*

아직 합격여부를 알지 못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면접을 준비하던 04년도 겨울, 어렵듯이 기억나는 장면이 있다. 두 강의실에 예비 새내기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있었는데, 선배들로 보이는(연대 잠바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남자들이 뒤에 서서 집게 손가락으로 한 명 한 명 세고 있었다. 처음에는 수험생 인원을 세는 줄 알았는데, “야 여자 몇 명이야? 올해는 많이 좀 들어와야 할텐데...” 하며 낄낄대는 목소리를 들으니 그 해아림이 불쾌해졌다.

이 장면은 입학 후 하고서도 이어졌다. “올해는 여자 몇

명이야?”가 선배들의 관심사였다. “총 13명 들어왔어요”라는 대답을 수없이 했던 기억이 난다. 그 질문이 매년 똑같이 이어지면서 더욱 확실해지는 것은 그것이 신대 내의 적은 여학우 비율을 우려하는 질문이 아니라 그들 표현대로 ‘분위기를 좀 화사하게 만들 수 있는’ 여학우들이 ‘적당히’ 있어줘야 한다는 것이었다. 여학우들에게 기대되는 것은 기껏해야 그런 화사함이었기 때문에 같은 새내기끼리 나란히 앉아있어도 남자 새내기에게 돌아가는 질문은 “농구 좋아해? 어떤 음악 좋아해? 즐겨있는 책 분야가 뭐야? 신학과에 왜 들어왔어?” 식이고, 여자 새내기에게 돌아가는 질문은 “예쁘다. 머리길이가 굉장히 길다. 어디 살아? 시간이 늦었는데 안 들어가 봐도 돼?”였던 것이다.

매년 약 60명의 새내기들이 신학과에 들어온다. 성비가 ‘유동적’이라고 하지만 새내기 여학우들이 채 20명

도 넘지 못하는걸 보니, 그다지 유동적인 것도 아닌 듯하다.

“신대에 여학우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수적으로 지금보다 더 많아진다면 가부장적인 분위기를 친여성주의적인 공간으로 만드는데 함께 노력할 친구들이 생겨서 좋고 그들이 발산해낼 긍정적인 에너지들도 신대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여성들의 숫자와 수율을 이기지 못해 신학과 내에도 현재의 여성신학동아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성신학’ 과목이 생겨날 것이고 교수님도 초빙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서는 가부장적인 분위기의 절정인, ‘아버지 하느님’ 만이 난무하는 신학 분야와 교회 내에서 성 평등한 세상을 노래하며 억눌린 여성들의 자아들을 함께 해방시키는 씨앗들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만 해도 가슴 뛰는 일이다!

“여학생회”를 낳는 출신의 고통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신대 내에서 여성의 비율이 적다 보니 여학우들의 목소리를 모아서 발언할 만한 통로가 없었다. 여학우들의 입장을 대변할 사람이 신과대운영위원회에 참석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자, 여학생회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06년 3월, 제1대 신대여학생회가 출범했다. 신대 회칙 수정을 위해 개강총회에서 여학생회가 거론되었는데, “왜 남학생회는 없나요?”, “여학생회는 여학우로만 구성되나요? 그러면 신대내의 공동체성에 균열이 생기게 되는 것 아닙니까? 남학우도 집행부로 받아주는 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등의 우문이 이어졌다.

신과대 여학생회는 소수자 여성들이 수업에서, 뒷풀이 자리에서, 동아리방 등에서 느끼는 소외와 억압적인 지침들에 대한 한풀이와 수다가 있는 자리이고, 성희롱이 농담으로 이어지는 것을 제어할 수 있는 대책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대안적인 문화를 창조해내는 자리이다. 끈적끈적한 타인의 시선으로 고통받아본 적 없고, 섹슈

얼리티를 이유로 차별받거나 소외받고 당연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입장이 되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왜 그 소수자들만을 위한 모임이 따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은 엄연한 2차 폭력이다.

그리고 남자들은 여자들끼리만 있으면 ‘남자’들이 있어야 될 것만 같은 생각인지 과잉배려를 하는 것이 몸에 배어있는 것 같기도 하다. 신과대에서 제2대 여학생회 <다담>에서 종강총회로 여학우들끼리 모여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했을 때도 몇몇 남학우들은 “우웁... 남학생들도 한번 하자! 종강파티! 암튼 여학생들은 좋겠네!” “남학생은 전혀 들어갈 수 없는 자리인가 ㅠ. 안타깝다.”는 식의 리플을 달았다. 사실 남학우들은 자리를 일부터 만들어주지 않아도 저들끼리 약속을 잘 잡아서 여후배들과 잘 만남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여학우들끼리의 연대 자리에 끼려는지 사실 이해가 잘 안된다.

편입생협의회에서 모임을 몇 차례 진행했을 때도 그들의 모임 역시 소수자들을 위한 모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왜 재학생들은 끼여주지 않느냐”는 물음을 묻은 적이 없었다는 것과 비교해보면 확연히 남학우들의 ‘여학생들끼리의 모임’에 대한 질투는 의아하게 보인다.

그들의 질문은 자연스럽게 ‘왜 여학생휴게실(여후)가 있어야 하는가’로 이어졌다. 신대에 있는 동아리에게 하나씩 주기에도 방이 모자란데 왜 굳이 ‘여학생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야 하느냐, 그러려면 남학생 휴게실도 만들어라 라는 식의 발언들이 오고 갔다. 인원이 얼마 되지 않는 적은 규모의 단대이기 때문에 서로 친밀하다는 것이 우리의 토론을 가로막았다. 여성들이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덜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남이가” 하는 목소리에 파묻히기 일쑤였다. 이 분위기는 신대와 같은 건물을 쓰고 있는 언더우드 국제학부도 다르지 않았는데, 심지어는 여후에 국제학부 남학우들이 계속 들어와서 여후 입구에 ‘여후의 필요성과 남학우 출입금지’를 써 붙일 정도였다.

* <다시 태양이 되기 위하여>는 현경 선생님의 아시아 여성신학 책의 제목을 따온 것이다.

〈오빠〉 사건

“우리가 남이가?” 하는 식의 관계 맺기는 ‘오빠’ 호칭에서 절정에 달한다. 새내기들이 들어왔을 때 처음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며 과잉친절을 베푸는 ‘오빠’들이다. 새내기 OT에서든지, 수련회에서든지, 뒷풀이에서든지 스스로 망가져가면서까지 새내기들을 웃겨주고, 따로 만나면 밥에 후식까지 사주며 필요한 교재목록과 수강신청까지 챙겨준다. 경험을 더듬어보면 처음에는 새내기를 잘 챙겨주는 선배들의 배려에 감동했지만 그 배려에 내가 ‘너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 주체적으로 무언가를 한다는 것에 무뎌져버렸을 때 문제가 발생했다. 한 학기 내지는 일 년이 지나고 난 뒤 그렇게 ‘전적인 배려’를 받지 않은 남자 동기들에 비해서 내가 턱없이 미숙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동아리에서도 막내이고 모임에서도 ‘꽃’으로만 대접받던 것에 익숙해져있던 것이 오히려 내 성장을 가로막는 무거운 돌이 되어 내 자아를 짓누르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 상황을 개인적인 문제라고만 생각했는데 주위에 나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동기와 후배들이 있었다. 그 때 우리는 그것이 모두 각자의 미숙함이라고만 치부하고 문제를 자기의 내부로 돌렸는데 함께 이야기하다보니 상황이 우리에게 이미 그렇게 ‘던져져’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가 처음부터 주체적인 자리를 거부한 게 아니라 애초부터 우리는 구조적으로 ‘배제’되었을 뿐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깨달아가고 있을 무렵, 2006년 또 새내기가 들어왔다. 모든 것이 다시 반복되는 것이 눈앞에 보였다. ‘오빠’들의 배려는 또 다시 ‘새내기’에게 집중되기 시작했다. 작년까지 모든 배려와 관심을 받아왔던 새내기들은 소외감에 어쩔 줄 몰랐고, 그들에게 ‘오빠’들은 ‘헌내기’라는 단어로 일관할 뿐이었다. 이것이 구조적인 문제임을 인식하자 신대 일부 여학우들은 ‘오빠 안 부르기 운동’을 시작했다. 단순히 ‘오빠’라는 호칭

만 쓰지 않는 것이 아니었다. ‘꽃’이었던 것에서 벗어나 ‘이름’을 되찾는 주체적인 작업이 이루어지는 순간들이었다. 신대 대다수의 여남 선후배 관계가 ‘오빠-동생’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의 그 운동은 여파가 컸다. 이러한 움직임은 신대 내 ‘오빠들’에게서 엄청난 분노를 사게 했으며 이 자리에서도 저 자리에서도 토론이 일어났다. “그래, 니네 오빠라고 왜 안하나. 들어나 보자!” 라면서, 남자 선배들이 ‘오빠’ 호칭을 쓰지 않는 것에 대한 반감의 제일 큰 이유는 ‘멀게 느껴지니까’라는 이유였다. 그러나 오빠라는 말 자체가 이미 오빠-동생이라는 권력구조를 깔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편하고 평등한 관계맺음의 시작일 수 있는가!

주의하시라. ‘오빠’들의 관계맺음의 시작은 이런 식으로 시작한다.

“이름이 -라고 했나? 나는 04학번이야. 새내기니까 말 낱도 되지? 편하게 오빠라고 불러.”

그 말은 사실 학번권력, 나이권력, 성별권력 모든 안 좋은 건 죄다 모아놓은 ‘농축액’이었을 뿐이었다. 학번이 ‘높고 낮다’는 개념, 04는 05보다 ‘위에’ 있다는 전제, 나이가 많은 사람은 나이가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에게 말을 ‘함부로’ 놓아도 된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 등등의 결합체일 뿐이다.

길고 긴 대화 끝에 맺어진 건강한 관계 중에 소개하고 싶은 것은 ‘애칭’을 사용하거나 서로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시 시작된 관계이다. 그간 알아온 시간들이 있었지만, 호칭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서로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는 ‘오빠’가 싫고, 상대는 ‘선배’라는 단어가 싫으면 함께 대안적인 관계 맺기를 하는 것이다. 그 때, 우리는 서로가 다시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었다. ■

by_ 행신(과대 물구나무)

그동안 우리가
잊고 지냈던 것

-문과대 이야기



2월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 새내기 배움터를 마치고 3월 2일부터 신입생들은 본격적으로 ‘대학’이라는 공간을 경험하게 된다. 대학에 입학하면서 신입생으로 경험하게 되는 가장 큰 일은 대학 강의를 듣게 되는 것을 제외 한다면 과/반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다. 신입생들은 처음으로 과/반방에 들어가 보고, 본격적으로 동기들과 선배들과 관계를 맺어나간다.

‘대학생’이라는 것만으로 설레었던 나의 새대거시절의 경험을 떠올려본다.

동기들과 수업을 듣고 우르르 반방으로 갔었다. 오늘 저녁 선배들과의 술자리가 준비되어 있다고 한다. 딱히 할 일도 없고, 아직 얼굴과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자연스럽게 술자리에 끼게 되었다. ○○○술집에 들어가 테이블에 앉았다. 선배들은 후배들과 섞어 앉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고 “다 같이 잔~” 후 술자리는 시작되었다. 2월 신입생OT와 새터를 마친 후였지만 여전히 얼굴과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다.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는 사람들끼리 돌아가며 인사를 했다. 맞은편에 앉아 있는 동기가 나의 사투리를 듣고 부산에서 살았냐고 묻더니 자신의 부산 여행 이야기를 잠시 해주었다. 이야기가 끝나자 침묵이 흐른다. ‘아 어색해 어찌지?’ 애써 어색함을 감추며 두리번거렸다. 우리와 비슷한 분위기의 테이블들이 대부분이다. “게임이나 할까?” 침묵을 깨고 선배 한명

이 묻는다. ‘또? 새터 때 게임 한 기억밖에 없는데... 대학생활에 대해 아는 것도 없어 궁금한 것도 많은데... 만날 때마다 게임만 하네. 원래 이런가? 모르겠다.’ 잠시 생각 하는 동안 옆 테이블에서 ‘말기 말기 말기말기말기...’가 들려오고 우리 테이블에서도 경마게임이 시작된다. 여러 가지 게임을 하다 보니 어느새 다들 조금씩 취해 있다. 술집은 각 테이블들의 게임 소리에 웅성웅성 거린다. 귀도 아프고 하지도 못하는 게임에 벌칙술을 계속 마셨더니 속이 울렁거린다.

이것이 내가 기억하는 3월의 모습이다. 나뿐만 아니라 게임과 술에 익숙하지 않은 많은 신입생들이 이런 어색한 3월을 보내지 않을까 한다. 사람들끼리 처음 만난 자리는 당연히 어색하다. 하지만 내가 느꼈던 더 큰 어색함은 그 어색함을 굳이 게임으로, 급하게 술을 마시는 것으로 무마시키려고 하는 분위기였다.

작년, 반에서 동기들과 후배들과 새대거시절을 준비하면서, 새대거 때 내가 가졌던 술자리에서의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동안 선배와 후배간의 많은 첫 만남에서, 많은 술자리에서 중요한 것이 잊혀져갔던 것이다.

과/반 소개 자료집을 준비하고, 포스트게임을 준비하고 술집을 예약하면서 잊고 있었던 것은 바로 ‘새내기들과의 대화’였다. 대화가 없어 어색한 공간을 애써 게임과 술로 메우는 대신 첫 만남의 공간을 ‘대화’로 채운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기억하며 편안한 관계 맺음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처음 만난 사람들 간의 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3월이 새대거들과 알아가는 첫 단추를 채우는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모두가 편안하고 즐거운 만남을 준비해 간다면 어색하게 게임하고 술 마시는 것 외에 나눌 수 있는 것이 많아지지 않을까? ‘대화’와 ‘관계 맺음’을 준비하자. ■

by_ 전소라(문과대 학생회장)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을 위하여 - 사과대 이야기



1. 들어가면서 - 에피소드 하나

오늘 신촌의 '짜다 돼지 마을'에 갔습니다. 가게 문 앞에 한 신입생이 울고 있더라고요. 옆에서 반대(반의 대표)로 보이는 05학번 남학생이 그 여학생에 말합니다.

"재현이가 술 취해서 실수한 거니깐 네가 이해해"

그 여학생은 울음을 그치고 가게 안으로 들어왔지만 도저히 웃고 떠드는 반 사람들을 볼 수 없었나 봅니다. 문 앞에서 또 한번 울음을 터뜨립니다. 눈물이 끊이지 않고 나오는 겁니다. 그 옆으로는 웃고 떠들면서 반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밥을 다 먹고 가게 밖에 나가서 용원을 신나게 합니다. 그 여학생은 계속 문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남자 선배가 술에 취해서(시간이 6시 정도였습니다.) 그 여학생의 가슴을 만져서 그렇게 속상해 하고 있었던 겁니다. 반 대표는 다시 말합니다.

"재현이가 취해서 그런 거니깐 네가 이해해줘"

오늘 하루만 해도 이런 식으로 반에서 신입생들이 속닥거리는 남자 선배들의 이야기가 벌써 3건입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재현"이란 사람이 취해서(오, 리얼리?) 그 여자 친구의 몸을 만졌어요. 상상해 보실래요. 누군가의 손이. 누군가의 눈이. 나의 몸을 훑는다는 것을 상상해 보실래요. 눈물은 끊이지 않는데, 그냥 이대로 반을 떠나고 나만 조용히 하면 끝이겠지만, 그게 진정 끝이 아님을 아니깐. 그저 응원하는 반 사람들 바로 옆에서 내가 당한 일을 아는 단 한 명의 언니를 감싸 안고 우는 저를요.

왜 굳이 좋은 일, 기쁜 일도 아닌 걸 상상하냐고요? 가끔은 내가 누군가로부터 나의 몸에 대해 평가 받고, 가끔은 나의 허락도 없이 너무 당연하게 내 어깨에 손을 올려 놓는 것이 아무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나이가 어리다는 거 하나와 여자라는 거 점 하나로 인해서 나의 몸이 타인보다 더 평가를 많이 받고, 내가 손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누군가의 손이 내 어깨에 올라간다는 차이가 나타난다면, 우리는 어쩌면 정해진 길로만 가고 있는 거 아닐까요. 해본 적이 없고, 경험한 일이 아니라면, 한 번 상상해봐

요. 좋은 일과 나에게는 충분히 생길 수 있는 나쁜 일까지도 같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항상 여학생이라는 이름아래 걸어왔던 똑같은 길에서 한번 이탈해봐서 나만의 길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2. 연대의 꿈을 꾸는 난

나의 인생은 연세대에 와서 많이 변했다. 대학은 나의 꿈을 위한 하나의 계단 혹은 길이었지만, 이 속에서 처음으로 느끼게 된 감정과 떠올린 생각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연대에 들어 온, 혹은 대학교라는 고등학교 이후의 어떠한 공간에 대한 기대는 단지 막연했지만, 그것이 현실이 되고, 일상이 되고, 꿈을 꾸는 잠자리가 되니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겠지- 했던 일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니, 더 많은 고민과 성찰을 하게 되었다.

오은실양, 박진모군, 은실 누나, 진모 오빠 - 호칭에서부터 요즘 여학생들이 기가 너무 세서 우리 남학생들이 불쌍해요 - 라는 여학생들을 하나의 모리로 묶어놓고 마치 이해관계가 걸린 집단으로 남자와 여자를 나누려는 발언들.

여성학은 여성우월주의를 외치는 거일 뿐이야 - 라는 잘 모르는 것들에 대한 무조건의 단정이 난무하는 술자리까지 나의 일상은 의문과 여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대학생활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으로 가득 찼고,

1년의 새내기 시절을 차분하고 착한 신입 여학생으로 보내고 나니, 남녀공학인 연세대학교에서 어느 여자대학교 학생들보다 경쟁력을 잃어가는 누군가의 딸 혹은 여동생으로서의 나를 발견했다.

처음에 연세대에 들어왔을 때는 당연히 나는 같은 동년배 혹은 나이는 다르더라도 조모임을 같이하는 동등한 조원으로 활동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나니, 같이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남학생들이 내가 나의 의견을 펼치고 당당히 말하는 것보다 예쁘게 단장하고 조용히 앉아서 미소를 짓는 것을 더 좋

아한다는 걸 알았고, 또 그것에 맞춰서 행동하는 나를 발견했다. 난 일년 동안 열심히 정해져 있는 '여자'라는 범주에 내 몸을 꾸깃꾸깃 넣고 있었다.

내가 신입생 때 못 한 일이 있다면, 여남공학 연대에서 신입생으로 살아가면서, 여성으로서 은근슬쩍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고 나의 꿈과 그 요구되는 자태들의 연관성을 한 번 찾아보는 일이다. 즐겁게 대학의 기운을 느끼면서 '여대생'으로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게 어떤지에 대한 고민 또한 놓치지 않고 해본다면 내가 2학년 때 늦게 깨달았던 점들을 신입생 때 알고, 더 멋지게 대학 생활을 했을 거라는 시원 짭짤한 반성을 해본다.

3. 나가면서 - 우행시

이렇게 만난 우리가

너무 슬프다

이렇게 만난 우리가

너무 행복하다

영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중에서

내가 대학이라는 새로운 일상에 들어와서 여성학의 매력에 빠진 것은 바로 슬픔과 행복의 교차점을 찾는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여성학이라는 공간은 처음에는 설레면서 의문이 가득하다가 화가 나기도 하고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시무룩하기도 한, 그러다가 지쳐서 울음을 터트리기도, 혹은 웃으면서 우는 그런 곳이었다. 하지만 결국 알게 된 것은 이 공간이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을 위해 존재하는 점!

자매애의 즐거움을 한 번도 누린 적 없다면 이곳, 연세대학교에서 맘껏 누리보세요. 그리고 자기애를 찾아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공간으로 대학은 정말 딱 이랍니다. 새로운 판을 짜보는 거예요, 좀 긴장되긴 하겠지만, 한 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을 위하여! ■

by_ 오은실(사과대)

새터 공동체 놀이 문화 다시 보기

앞선 성평등 자치규약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고, 성평등 자치규약에 대해 어느 정도 '감'이 오셨나요? 성평등 자치규약은 '일상에 깊이 침투해있으며, 관계 맺기의 전제가 돼버린 '권력'에 의해 공동체 문화, 놀이 문화가 특정 성/성정체성을 배제해오지는 않았는지' 성찰하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새터에서 이뤄지는 공동체 놀이 문화에서 우리가 다시 봐야 할 점들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볼까요?

FM 지금은 FM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단대/반도 있는데요. (나의 별명 짓기, 나를 대표할 수 있는 단어 말해보기 등등...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만 대학 생활을 하다보면 누구나 한번쯤 FM으로 자신을 소개하거나, 소개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만큼 FM은 대학에서 대표적인 자기소개 방식이 되었는데요.

FM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뜻의 군대 용어 Field Manual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이후 FM은 대학 내의 자기소개 방법으로 이야기되면서, 강한 '남성성'으로서 강조되는 큰 목소리, 오바스러운 동작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으로 정착되었는데요. 또한 FM을 이야기할 때 여성에게는 AM, 애교스러운 표현 방식으로 '여성성'의 표현을 강조하도록 하는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면서 FM/AM을 통한 가부장제 사회에서 말하는 '여성성', '남성성'을 극대화시키기를 '강요'하는 것이 당연한 듯, 이뤄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소개하는 것에 있어서도 성별이분법적인 구분이 드러난다니, 이것은 상상력의 빈곤을 넘어 개개인을 그만의 정체성이 아닌 여성, 남성의 성으로만 보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겠지요? 게다가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FM의 목적이라면 이는 분명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FM을 통해 기본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은 자신의 단대/반이 무엇이고, 몇 학번이며, 이름이 무엇이다,



정도이지요. 또한 큰 목소리, 이와 동시에 크게 움직이는 동작, 이에 어긋나면 몇 번이고 똑같은 소개를 반복해야 하는 것은, 하는 이도 듣는 이도 그리 즐겁지만은 않게 만드는데요.

자신을 소개하는 방법이 얼마든지 다양하고, 재미있는 방법들을 찾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FM만을 고수할 필요는 없겠지요?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가부장제 사회가 강요, 강제하는 남성성, 여성성의 재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문화는 반드시 지양되어야 합니다. 이제 나를 소개하는 것, 상대방을 알아가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들, 놀이들이 있을지 고민을 시작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FM/AM을 통해 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끊임없이 강조해온 것은 아닌지, 재미있다는 맹목적인 이유로 이를 하고 싶지 않은 친구들을 배제하고 소외시키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공동체 문화를 다시 보고,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성찰해야 하겠습니까.

응원

새터를 준비하는 정든대기들은 '난 용원을 잘 모르는데.' 라는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새내기, 정든대기의 첫 만남이 어색하기는 하고, 빨리 친해지고 싶기는 하고, 이럴 때 보통 정든대기들은 새내기들에게 용원을 가르치고, 이를 함께 함으로써 서로 큰 목소리로 용원을 하는데요. 하지만 진정한 용원은 서로 기운을 북돋아주고,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용원을 하면 친해질 수 있다.' 는 것은 어쩌면 빨리 친해지고 싶은 환경에서 우리가 만든 하나의 신화일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즐겨야 한다.' 라는 전제로 시작되는 용원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용원을 새롭게 만들기 보다는, 끊임 없이 비장애인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남성성의 과도한 표현을 강조하며 '연세인이라면 당연히 해야지' 라는 '연세 정신'으로 '강요'되고 있는데요. 서로 즐겁게 응원할 수 있는 분위기, 그 기쁨이 좀 더 중요해지기 위해서는 서로를 알아가고, 친해질 수 있는 다른 놀이와 방법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덧붙여, 축제 기간 동안 신촌 거리에서 진행되는 응원들이 '일탈'과 '쾌감'의 정도를 넘어, 다른 이들에게 '불편' '불쾌감'을 끼치는 것에 대한 성찰 또한 성숙한 응원문화를 위해 우리 모두가 반드시 성찰해야 할 문제겠지요?

술자리문화/ 놀이문화

새터에서 시작하여 우리는 대학 생활을 하면서 많은 술자리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술자리 문화, 그리고 술을 마시면서 우리가 하는 게임들은 보통 어떤 형태인가요?

술을 마시기 위한 게임이 주가 아니었나요? 놀이를 통해 새대기와 정든대기가 바라는 것은 좀 더 친밀감을 느끼고, 친해지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오고가는 술잔 속에, 서로에 대한 이야기, 나를 소개하는 시간은 쏙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어색한 분위기를 띄운다는 이유로 많은 성적인 표현들이 오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누구에게 어색한 분위기를, 누구를 대상화하며, 누구를 위해 띄우고 있나요? 특정 성/성정체성이 배제되고, 대상화될 때, 이에 대한 문제제기조차할 수 없는 분위기일 때, 우리는 이것을 '즐겁기 위해서 하는 농담'쯤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특정 성/성정체성을 배제하거나, 이를 통해 폭력적인 언행을 하지는 않았는지, 다시 봐야 하겠습니까. ■

by_19대 총학생회

새터와 OT 준비에 정신없을 정든내기들을 위한 몇 가지 T I P

2월이 되면서 새터와 OT에 정신없을 정든내기들을 위해서 즐거운 새터와 OT를 만들기 위한 몇 가지 TIP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새내기 때 처음 새터와 OT를 참가했을 정든내기들에게 지금의 상황이 전혀 낯설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위치는 참가자에서 기획자로 변화했지요, 그리고 경험자로서 궁금한 것 많은 새내기들에게 대학 생활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지요. 하지만 나의 위치가 변하면서 새내기 때 일을 모두 잊어버리지는 않았나요?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잊지만 않는다면, 좀 더 올챙이와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 지도 모릅니다. 다 즐겁다고 하는 일인데, 저 새내기는 뭐가 불만인걸까? 라고 생각했다면, 나의 새내기 시절을 돌아보면 알 수도 있겠죠. 갑갑했던 고등학교를 떠나서, 술과 담배가 허락되고, 그 때부터 자유로운 세계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때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자, 새내기 때다. 처음 만나는 선배는 반갑게 인사해준다. 그리고 곧 말을 놓는다. 그래, 뭐, 음, 하지만, 나랑 언제 봤다고? 그리고 저 선배는 나보다 나이는 어린데, 어랏, 동기들 중에도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있네. 존댓말을 할까, 반말을 할까. 아아, 뭐가 이렇게 복잡해!!

복잡할 만하지 않나요? 처음 만나서 친하게 서로를 알아갈 시간도 많지 않았었는데, 호칭 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나이에 따른 호칭을 자연스럽게 따라왔었는데, 대학에서는 학년에 따른 호칭 역시 겹쳐지니 복잡하지요. 그렇다면 우선, 서로 존댓말을 사

용하는 것이 어떨까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아직 서로 모르는 부분을 질문하고 대답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경청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서로 친해졌을 때, 상호 동의 하에 반말을 쓰든, 존댓말을 쓰든 정해 봐요. 물론, 그 전에 던져보아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 학년에 따라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호칭, 그리고 존댓말은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일까요?

다시 새내기 때로 돌아왔다. 새터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는 술자리! 한잔, 두잔 좋은데, 세잔부터는 별로 마시고 싶지 않아졌다. 하지만 계속 진행되는 것은 술먹기 게임이고, 옆 사람과 말 한마디 나눌 때도 술부터 마시지네. 술을 마시라고 강요하는 선배들은 술을 피해봤지만, 이곳저곳 다 술만 먹고 있으니, 편할 곳도 없고 술 잘마시는 동기는 계속해서 멋진 아이로 칭찬받고 선배들과도 빨리 친해지는 것 같다. 예라, 모르겠다, 계속해서 술을 먹고 술을 필름은 끊긴다. 머리는 깨질 듯이 아프고, 내 옆에서 술을 마셨던 이 많은 동기 및 선배들은 이름조차 모르겠다.

술자리? 강요만 하지 않으면 되지, 라고 말하지는 않았나요? 하지만, OT 끝나고 새터 정규 행사가 끝난 후에 친해지자고 술 마시는 분위기 속에서, 술을 마시고 싶지 않다면 어느 곳에서 친해져야 할지, 막막해지는 새내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해지려고 마시는 술에서 깨어나보면, 동기와 선배와 나누었던 대화는 커녕 이름도 기억나지 않고, 서로 서먹서먹 해진채로 있지 않았나요? 각테일 소주를 만들기 위한 음료가 아니라, 옆에 있는 선배와 대화를 나누기 위한 음료를 준비해보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떤 곳에서 살았는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해보세요. 끈끈한 공동체는 술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관심과 대화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직도 숙취 때문에 두통이 계속되고 있는 사이에, 성폭력이라는 단어가 들려온다. 밤에 한 선배가 새내기를 만졌다고 한다. 어떤 선배들은 술김에, 친해지자고 한 것이니 좋게 좋게 넘어가자고 한다. 하지만 다른 선배들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만나는 것을 힘들어하니 우선 가해자가 새터 장소를 떠나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다들 수군수군. "그 새내기가 너무 민감한거 아니야, 공동체에서 친해지려다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게 무슨 성폭력이야. 이게 다 자치규약 때문이야." 응? 근데 자치규약이 뭐지?

OT도 점점 끝나가고, 이제 새터를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새터 떠나기 전, 반에서 진행되는 자치규약 교양을 시작해야겠죠. 이제 새내기들이 "자치규약이 뭐예요?" "나이·학번 권력이 뭐예요?" 등 이것저것 질문을 해올 텐데, 잘 모르시겠나요? 새내기 때 자치규약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적이 없었나요? 그렇다면 우선, 자치규약 자료집을 꼼꼼히 읽어보세요. 자치규약 전문은 기본으로 보셔야겠죠? 그럼 이제 주위에 새터 기획단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리고 새내기들과 바로 뒷장에 있는 "정든나기와 새내기가 함께 하는 자가 진단 테스트"도 함께 해보아요. ■

by_ 19대 총학생회

정든내기와 새내기가 함께하는 자가 진단 T E S T



모두들 자치규약 자료집은 다 읽어보셨죠? 그렇다면 이제 자치규약에 대해서 내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자가 진단 테스트를 해봐요! 9개의 명제가 맞는지 틀린지 생각해보고 잘 모르겠는 부분에 대해서는 뒷장의 상세한 설명을 읽어 보면서 함께 생각해봐요 ^^

자가 진단 T E S T

- ① 연세대학교는 내규와 자치규약을 성폭력 학칙과 함께 만들었다. ()
- ② 자치규약은 남성을 잠정적 가해자로 규정하고 있다. ()
- ③ 성폭력은 물리적인 폭력 뿐 아니라 언어적인 유형 모두를 포함한다. ()
- ④ 성폭력 피해자에게 있어 2차 가해는 1차 가해만큼 중요하지는 않다. ()
- ⑤ 피해자의 옷차림과 늦은 귀가는 성폭력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이다. ()
- ⑥ 다수가 즐기는 공동체 문화에 대해서 그것을 성폭력이라고 문제제기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감정이 예민하기 때문이다. ()
- ⑦ 공동체 구성원에게 있어 학벌 및 나이 권력은 평등한 관계 맺기와 성명등을 저해하는 역할을 한다. ()
- ⑧ 공동체 내의 특정한 상황에서, 구성원이 이것에 대해 아무 말이 없음은 동의를 나타내는 한 방법이다. ()
- ⑨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발언 정도는 성폭력이라고 보기 어렵다. ()

9개의 명제를 읽어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앗 이걸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들고, '음, 이걸 잘 모르겠네...' 라는 생각도 들지는 않으셨나요? 이제 여기에 나오는 설명을 읽으며, 잘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자치규약 전문을 다시 읽어보세요. 자치규약은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약속입니다. 즐거운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 자치규약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① 연세대학교는 내규와 자치규약을 성폭력 학칙과 함께 만들었다.

☞ 학내의 성폭력 문제는 그동안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었으나 예방을 위한 노력 및 처벌 규정과 같은 제도적인 장치가 확립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였다. 그래서 2000년에 학교측과 학생대표들이 모여 성폭력 사건의 처리 과정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 학칙을 제정하였다.

같은 해에 학생들은 새터와 같은 공동체 문화가 결코 성폭력적인 요소와 떨어져 있지 않은 실정에 대한 학생 스스로의 반성과 공동체 문화의 성찰을 촉구하기 위해 자치적으로 내규를 만들었다. 성폭력 학칙이 처벌 규정을 중심으로 한다면 내규는 성폭력 예방 및 성찰이 중심인 공동체 내부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다. 내규는 2006년 2차 개정을 하면서 성평등 자치규약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2007년 현재 3차 개정이 된 상태이다.

② 자치규약은 남성을 잠정적 가해자로 규정하고 있다.

☞ 자치규약은 성폭력적인 문화에 대한 성찰과 예방을 위한 구성원 모두의 약속이다. 그것은 문제의식 없이 지나쳐온 일상에 대한 성찰 및 재구성성의 필요를 의미한다. 분명히 남성중심적인 사고와 사선이 일상에 자리 잡아 왔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을 지적하며 바뀌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이 남성을 잠정적인 가해자로 규정하고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어느 한 성을 가해자로 규정하여 무조건적인 성찰의 계기를 마련하지는 것이 아니라, 이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되새겨보고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③ 성폭력은 물리적인 폭력 뿐 아니라 언어적인 유형 모두를 포함한다.

☞ 흔히 성폭력이라고 하면 강간과 같은 극단적인 폭력 행위를 떠올리기 쉽고, 성폭력의 범주가 이러한 폭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자치규약에 나온 것처럼 성폭력은 개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성적인 성격을 띤 언어적, 정신적, 신체적 행위 및 요구를

포함한다.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성 정체성 및 성별에 기반한 역학을 고려하지 않는 발언으로 불편함을 조성하였을 때에도 성폭력에 해당된다.

④ 성폭력 피해자에게 있어 2차 가해는 1차 가해만큼 중요하지는 않다.

☞ 2차 가해는 성폭력 혹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사회적으로 왜곡된 통념을 적용시켜 성폭력 피해자에게 정신적,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주게 되는 행위를 말한다. 성폭력을 겪은 피해자에게 '나는 그게 성폭력이 아닌 것 같아' '그러게 그 시간에 왜 갔었어?' 라는 통념적인 판단으로 하는 말들이나, 가해자와의 친분을 근거로 가해자를 옹호하는 것들이 이에 해당된다. 이것은 피해자가 겪은 1차 가해보다도 더욱 반복하게 일어나고 있는 가해이다. 2차 가해는 일상의 성폭력적인 문화에 대한 성찰이 없었을 경우 자신이 왜 가해를 했는지 알 수가 없는 문제를 갖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걱정이나 안타까움으로 이러한 말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있어서 사건 해결을 어렵게 하는 것은 자신의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으로 사건을 판단하고, 규정지으려고 하는 주변인들의 태도가 더욱 큰 요인이 된다.

⑤ 피해자의 옷차림과 늦은 귀가는 성폭력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이다.

☞ 흔히 사람들은 피해자에게 성폭력의 원인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나, 옷차림과 늦은 귀가와 같은 임의적인 상황이나 공간과 같은 요소는 성폭력을 유발하는 원인과는 무관하다. 성폭력 가해자는 피해자가 누구이며 어떤 공간에 있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성에 기반한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성폭력이 아닌 이외의 사건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지는 않는다. 그러나 성폭력 사건의 경우 대부분의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점은 '여성'이라는 범주에 속하지는 않는 무성적인 존재 혹은 성적 대상화된 존재라는 통념과 결합하여, 피해자가 성폭력을 유발했다는 식의 왜곡된 관념이 강화되어 더욱 약자의 위치에 놓고 있다. 그러나 폭력을

일으키는 사람은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이다.

⑥ 다수가 즐기는 공동체 문화에 대해서 그것을 성폭력이라고 문제제기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감정이 예민하기 때문이다.

☞ 정확히 말하면, 모든 사람들의 감정은 다양하고 존중 받아야 하는 것임에도 개인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예민하다는 것으로 판단하는 분위기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의 불편함은 불편함 그 자체이며, 이에 해당되는 원인을 갖고 있다. 이 점을 두고 누군가가 '너의 그러한 감정은 예민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라며 상대방의 감정을 판단할 권리는 없다. 오히려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이 존재하는데도 공동체 문화에 대한 성찰이 전혀 없이,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며 배제하는 것을 두고 '공동체 문화'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일까? 누군가가 불편한 분위기 혹은 발언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려고 할 때,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 및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⑦ 공동체 구성원에게 있어 학년 및 나이 권력은 평등한 관계 맺기와 성평등을 저해하는 역할을 한다.

☞ 대학에 입학하면 각각의 구성원이 다양한 나이와 학번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누군가는 나보다 학년이 높으면서 나이가 어리고, 누군가는 나이가 많지만 학년은 낮은 경우가 그렇다. 개인과 개인의 평등한 관계 맺음 이전에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학년이 높은 사람으로 누군가를 규정했을 때는 풍부한 관계 정립이 어려워지고 학년 및 나이 권력으로 인한 폭력이 용인되는 문화가 쉽게 형성된다. 상대방이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학년이 높기 때문에 성폭력적인 놀이 문화를 요구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문제이며, 학년 및 나이 권력 때문에 문제제기를 할 수 없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도 지양해야 할 부분이다.

⑧ 공동체 내의 특정한 상황에서, 구성원이 이것에 대해 아무 말이 없음을 동의를 나타내는 한 방법이다.

☞ '아무 말이 없음' 이 동의를 나타내는 의사 표현인지 아닌지에 대한 물음 이전에,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은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음에도 왜 아무 말이 없었는가에 대한 물음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학년, 나이가 높거나 어느 한 성(性) 혹은 성 정체성의 사람들과 같은 누군가가 주도적인 역할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배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에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경우 의사 표현을 쉽게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혹시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모두가 말이 없다는 것을 근거로 그것을 모두의 동의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⑨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발언 정도는 성폭력이라고 보기 어렵다.

☞ 술자리와 같이 친목을 도모하는 성격의 공간에서는 분위기를 띄운다는 명목으로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거나 이성애중심적인 발상 및 성 소수자에 대한 희화화, 흔히 말하는 남성적이지 않은 남성애에 대한 조롱과 같은 발언들이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고 있고,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문제제기를 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된다. 왜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희화화하거나 대상화하는 성적인 맥락의 발언들을 필요로 하는 것이며, 이러한 발언 속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음은 생각하지 않는 것일까?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는,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발언이 과연 누구의 분위기를 위한 발언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

by_19대 총학생회장

대학 내 공동체를 위한 성평등 자치규약

- 우리 모두 지켜야 할 자치규약 의무사항 -

1. 학내 모든 공동체에서는 각종 행사 및 모임 자리에서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성폭력 발생 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1. 새터, 현장 활동, 대동제 등의 행사를 준비할 때는, 성폭력 사건 해결 주체 교양을 이수하고, 사건 접수 통로를 마련하여 이를 공고해야 합니다. 사건이 생긴다면, 언제든지 연락하기 위해 성폭력 사건 해결 주체의 연락처와 메일 등은 필수!

1. 각 학생회는 새터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 자치규약에 대한 교양을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모두가 즐거운 공동체를 위해서는, 공동체 구성원들 모두 약속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볼 시간을 가져야 하겠죠?

1. 행사 참여자에게 자치규약 자료집과 포스터를 배포해야 합니다! 이 자료집을 읽고 계시는 분들은 모두 받으셨죠? 새터 방에 부착된 포스터는 보셨나요?

1. 각 학생회는 현장 활동과 대동제 기간 2주전부터 행사가 종료될 때까지 본 자치규약을 소속 단위의 학생들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자치규약을 함께 고민해보자는 뜻에서 만들어진,
자치규약의 의무 사항들! 다들 잘 지키고 계시겠죠?

공동체 생활에 대한 여자 선배의 이야기



나에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은 언제나 즐겁고도 어려운 일이다. 처음 반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 나는 공통 관심사가 전혀 없는 사람들도 만났었고, 나와 마음이 정말 잘 맞는 사람도 만났었다. 여자친구, 남자친구도 만났고,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도 만났었다. 하지만 그 많은 관계들 속에서 나는 공동체에서 살아가기가 점점 힘들어졌다. 이것은 내가 공동체 생활 속에서 겪은 경험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래서 그 때, 내가 알았더라면, 조금 덜 힘들고, 조금 더 행복한 새내기 시절을 보내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되는 몇 가지 이야기를 당신에게 하려고 한다.

왜 꼭 여자 선배가 들려주는 글이냐고?

연세대학교 공동체라면, 특히 과반 공동체라면 그 안에 얼마나 여자선배들이 보이질 않는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과반 공동체에 남아있는 여자선배들의 수는 그 단과대의 여남 비율이 2:8이든, 5:5든, 8:2든 거기서 거기다. 그렇다면, 왜? 궁극중 때문에 눈에 보이는 남자 선배들에게 여자 선배들의 행방을 물을 때, 이런 대답을 들을 수 있다. "여자애들은 이기적이어서 그래." 공동체를 나온 여자선배들은 학점 관리하라, 취업 준비하라, 자기 일에만 바빠 공동체에는 소홀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남자 선배들만이 자기 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이타적인 사람인걸까. 이 논리만을 따라간다면, 새내기로서는 당연히 이타적인 남자 선배들에게 동경의 눈길을 보내고, 자신은 공동체를 떠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하지만 이렇게 들어간 공동체가 무엇을 위해, 무엇으로 유지되는지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고 왜 여자 선배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지도.

그녀들은 왜 사라졌는가?

내가 "우리 반 여자애들 물이 좋네, 나쁘네", 운운하는 나이 많은 동기의 말에 분노할 때, 함께 분노를 해주는 사람들은 많았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내가 이것을 공동체의 문제점으로 공론화시키고 변화지점을 모색하려고 하면, "남자애들은 흔히 하는 말이잖아."라며 나의 문제제기를 '예민함'으로 치부했다. 내가 "그들에게 나에 대해서 평가받고 싶지 않고, 나를 하나의 대상으로 평가하려는 그들의 태도



는 성폭력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반대표는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라고 나를 다독여줬다.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내 입이 더 이상 열리지 않기를 바랐다. 나는 분노했고, 더 이상 반 공동체에 나가지 않았다.

어떤 친구는 술과 담배를 전혀 하지 못한다. 선배들은 술과 담배를 못해도 괜찮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술집에 간다. "술? 안 마셔도 괜찮아." "자, 남자답게 원샷!" "마셔, 마셔, OO야, 넌 못 마신다고 했으니까 마시지 말고." 그녀는 술을 마시지 못한다. 그런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지 않을 자유가 아니라, 술을 마시지 않는 다른 자리다. 그들이 공동체 친목에 술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녀는 반 공동체를 나갔다.

어떤 친구는 남자 선배의 끊임없는 전화 공세에 시달렸다. 매일 밤마다 도착하는 기나긴 문자와 한번 받기만 하면 한 두시간을 훌쩍 넘길 때까지 끊이지 않는 전화에 그녀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그 선배는 그것을

'연애를 시작하기 위한 작업' 정도로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녀는 그 선배를 만나는 것조차 두려워 반 공동체를 나갔다.

변화하지 않으려는 공동체는 사람들이 공동체 밖으로 나가는 것을 자초한다. 이러한 공동체는 술과 담배, 술자리 게임은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한 필수요소라고, 남자 선배가 여자 후배들에 대한 품평회를 하거나 연애 공세를 하는 것은 당연한 '본능'이오 즐거운 대학생활의 활력소라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공동체는 그 안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문제제기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며, 그녀들이 반 공동체를 떠난 이유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다시 스스로 질문해보자. 이 공동체는 누구를 위한 공동체인가?

그녀들은 어디로 갔는가?

만약에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나는 계속해서 공동체 생활을 해나가면서 공동체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했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들을 찾기 위해 공동체를 나왔고, 그 사람들과 변화 가능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안착하고 있다. 다른 나의 친구들은 어떤 공동체도 찾지 않고, 행복하게 대학생활을 해나가고 있다. 그리고 반 공동체에서 뜻이 맞는 사람들을 찾은, 또 다른 나의 친구들은 반 공동체에 남아서 굳건해 보이는 공동체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고, 입만 막으려는 공동체가 아닌, 정말로 그녀들과 함께 해나갈 수 있는 공동체(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말이다.

공동체를 나간 사람이건, 공동체 속에서 변화를 피하는 사람이건, 그녀들은 '이기적'이거나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사람들이 아니다. 다만, 조금 더 행복하게, 당당하게 대학생활을 해나가려는 선택을 한 사람들이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행복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며,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by_ 원타

〈대학 내 공동체를 위한 성평등 자치 규약〉, 여연자연에서 만들었네?



여연자연이 뭐죠?

네, 여연자연은 〈여성 문제를 고민하는 연세 자치단위 연대〉의 준말입니다. 자치규약 본문을 읽어보셨나요? 4. 의무사항에 '본 자치규약을 논의하는 모임'에서 자료집을 제작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지요? 여연자연은 바로 '본 자치규약을 논의하는 모임'입니다. 물론, 자치규약 논의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여연자연은 '여성 문제를 고민하는 연세 자치 단위 연대'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여성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성 문제라는 말이 혹시 낯선가요? 왜 남성 문제는 없는 것일까 궁금한가요? 여성 문제는 단순히 여성만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성차별, 이성애중심주의 등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성별 권력 관계에 대한 문제제기로써 여성문제라는 정의는 시작됩니다.

우리 사회는 남성과 여성, 단 두 가지의 성만이 존재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연적인' 성별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여성은 본능적 모성을 지니며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고, 남성은 여성보다 강하기 때문에 여성을 보호해야 하며, 동시에 지배권과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다고 말합니다. 지배와 피지배 관계가 성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남성과 남성, 혹은 여성과 여성의 관계는 '비정상'이며, 남성과 여성의 이성애 관계만이 '정상'이라고 이야기됩니다. 이렇게 고정된 관념들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이것을 진실이라고 믿게 되고, 불평등한 성별 권력 관계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요.

여연자연에서는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는 성별 권력 관계에 대한 성찰에서 시작하여, 고정된 성별과 성역할에 대한 해제로 다양한 개인에 대한 억압을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성 문제에 대한 고민이 이것의 시작입니다.

나도 여연자연에 참여할 수 있을까?

여연자연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치규약이나 성폭력 운동, 전반적인 여성문제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언제든지 여연자연 모임에 참여하세요. 싸이월드에서 있는 여연자연 클럽에서는 지금껏 모임에서 논의된 내용, 앞으로의 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방문해주세요. ^^

여연자연 싸이월드 클럽주소 : yeoyeon.cyworld.com

